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5~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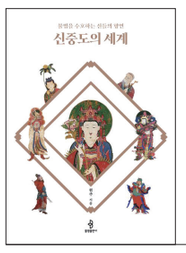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운명을 바꾸는 법	정공법사/이기화	불광출판사
2	자비도량참법	김현준	효림
3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스님	불광출판사
4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5	그림자 속의 향기	청전	담앤북스
6	부처의 인생 조언	정운	유노북스
7	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 세트	김강유	김영사
8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참선경에)	원택	장경각
9	한글 원각경(함허 해)	함허득통/원순	법공양
10	염주의 역사와 수행이야기	태경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열반경(2)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3	열반경(1)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4	불교사회 복지(프라즈냐총서60)	명안	운주사
5	격절록역주(선어록총서6)	원오극근	운주사
6	불교성전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아비달마불교(불교입문총서3)	권오민	민족사
8	요가디피카(아헹가 요가시리즈1)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10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의 향연



신중도의 세계
현주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3만5000원

한국불교 독창적 신앙 세계
신중도 기원·전개·도상 해설
욕망 지닌 존재·친밀성 높아
"문화 콘텐츠 활용 기반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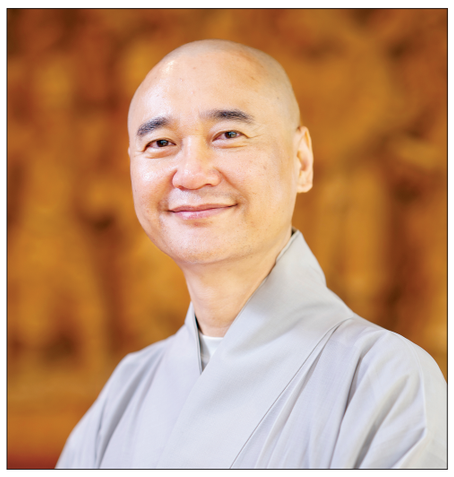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신중도의 세계〉는 현주 스님이 장엄한 신중 도상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 미술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중도 관련 논문만 13편을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과 국가유산청 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님은 한국 신중신앙의 특징은 〈화엄경〉을 바탕으로 한 '화엄신중신앙'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고려 시대까지 호국불교와 결합해 동아시아에서 독특한 신앙으로 전개됐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신중은 "부처님이나 보살, 나한보다 아래 위치한 존재이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욕망을 지닌 존재"로서 신도들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다. 그 친밀성으로 신중신앙은 불교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졌고 중국과 한국 등지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민간신앙까지 수용했다. 때문에 스님은 신중도를 "가장 서민적이며 개방적인 불화"라 말한다.

책은 여러 호법선신을 한 화면에 담은 신중도를 중심으로 신중신앙의 기원과 성립 배경, 제작 양상 등을 꼼꼼히 추적한다.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제작된 신중도 567점을 바탕으로 천상·지상·명계(저승)를 대표하는 제석천·위태천·염마라왕이 어떻게 신중도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는지 살피고, 신중도 속 다양한 신상(神像)의 정체를 밝힌다.



신중도 연구에 천착해 온 현주 스님(전남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특히 조선 후기 민간 토속신을 수용해 '104위 신중'으로 정비된 것은 우리만의 고유의 신앙 구조이자 "한국불교의 융합성과 개방성을 상징하는 결과물"이라 설명한다. 도교의 신선인 여동빈(呂洞賓)·종리권(鍾離權)·철괴리(鐵拐李)와 문배(門排)의 문신,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인 조왕신, 〈삼국지〉의 관우 등이 신중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신중도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판본류(板本類)의 차용이다. 신중도에 등장하는 장수형 호법선신들은 전통적으로 계승된 도상 표현이 제한적이었기에 다양한 삽화나 화보 등 판본류의 도상을 참고해 그려졌다. 책에서는 관우의 도상을 조왕신 표현에 차용한 사례나 〈옥추경〉, 〈삼국지연의〉, 〈만소당화전〉 등 판본류 도상을 참조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신중도는 인도의 신들뿐 아니라 신선, 문신, 민간신 등을 수용한 '한국불교의 융합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불화다. 사진은 서울 보문사 대웅전 신중도(1867).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현주 스님은 "한국의 신중도는 불교를 매개로 인도와 동아시아의 문화를 포괄하면서도 한국적인 특징으로 재탄생한 문화 콘텐츠"라며 "이 책이 대중들에게 불교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 나온 책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법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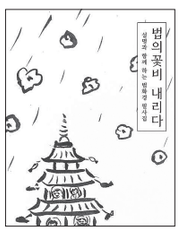
법의꽃 피어나다
권희재 편역
조이란 그림
나무지혜
2만5000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일컫는 〈법화경〉은 〈화엄경〉, 〈금강경〉과 함께 대승삼부경으로 여겨진다. 많은 경전이 '수행을 통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데 반해 〈법화경〉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소승의 수행으로는 아라한이 되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도, 진짜 부처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화경〉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암송집 〈법의꽃 피어나다〉와 필사집 〈법의꽃비 내리다〉는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을 전하는 108 구절을 가려 담은 책이다. 두 책 모두 올해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텀블벅 펀딩 '부처님의 성불 보증서-법화경 수행 세트' 프로젝트로 출간됐다.

암송집은 '서품'부터 '묘음보살품-보현보살권발품'까지 108구절을 사진·그림과 함께 실었다. 고려불화연구소를 운영하는 조이락 작가가 수월관음도, 만오천불도 등의 고려불화를 재현하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눈길을 끈다. 필사집은 〈법화경〉 구절의 원문과 우리말 번역, 필사 공간을 차례로 배치했다. 각 장마다 해당 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책을 엮은 권희재 씨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법화경종요〉, 〈간추린 법화경〉 등을 펴냈다.



법의꽃비 내리다
권희재 편역
조이락 그림
나무지혜
1만8000원

한 글자씩 쓰며 익히는 진리의 말씀



손으로 읽고 마음에 쓰는 붓다의 말
고운기 엮음
맘에드림 / 1만7500원

'가장 느린 독서'라 불리는 필사(筆寫)가 유행하면서 불교 경전 필사책도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따라 쓰며 경전에 담긴 뜻을 새기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진다.

〈손으로 읽고 마음에 쓰는 붓다의 말〉은 고운기 교수(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가 〈아함경〉, 〈화엄경〉, 〈법구경〉, 〈능엄경〉에서 가려 뽑은 게송을 해석과 함께 정리한 필사책이다. 저자는 '뗏목은 타고 강을 건너면 그뿐'이라는 〈중아함경〉의 가르침에 견줘 "이 필사도 뗏목 같은, 나룻배 같은 것이다. 더럽혀져도 좋으니 펼쳐서 쓰며 강을 건너는 데 벗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불교 교리와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무아, 연기, 자비 등이 AI 시대의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성찰하였다.
이석주 지음/신국판/408쪽/값 27,000원

한국 현대불교 80년 역사를 한 권에!
한국 현대불교사
광복 직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56쪽/값 23,000원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붓다의 지혜!
사랑은 아프다
온갖 종류의 이별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법과 불교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실용적이면서 위안을 주는 책이다.
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국판 변형/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